

3 신년특집 인터뷰 -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 주도하는 강기정 시장



이재명 정부의 핵심과제인 '5국 3특' 추진에 발맞춰 최근 '광주·전남행정통합'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1호 통합특별시'를 목표로 통합논의를 적극 주도하고 있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 통합의 핵심내용과 궁극의 목표에 대해 들어본다.

5 신년특집 인터뷰 - 민형배가 말하는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예고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통합을 "간판 바꾸기가 아니라 권한과 재정이 따라오는 구조의 전환"이라며 "통합의 목적 또한 단순한 행정효율성이 아니라 시·도민 삶의 실질적 이익과 미래의 판을 키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동진 목사 1월 국·내외 부흥성회

010-5255-7777
010-5255-7777

1월 18일(토) 오후 2시
광양교회 예배당에서 거행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 2026 정기총회

1월 31일(토) 오후 3시 향린교회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교개연) 2026 정기총회가 1월 31일(토) 오후 3시 향린교회(서울 종로구 경희궁2길 11)에서 열린다.

1부 여는 예배는 새삼교회 이수연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며 2부 미니콘서트는 교개연 회원모임 '평화합창단'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 2026 정기총회

1부 여는예배
말씀 : (이수연 목사(새삼교회))

2부 미니콘서트
교회개혁실천연대 회원모임 '평화합창단'

3부 정기총회

2026년 1월 31일(토) 오후 3시
향린교회 서울 종로구 경희궁2길 11

02-711-2793 protest@protest2002.org

이다. 이어 3부는 정기총회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교회개혁실천연대 회원, 임원, 사무국, 언론 및 관심자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단, 회원(후원회원, 위원회원, 기관회원)이 아닌 경우 의결권과 발언권이 제한될 수 있다.

교개연은 "이번 정기총회를 녹색총회로 개최하며 기후위기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종이의 사용을 줄이고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개연은 또 "교회개혁의 길에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총회에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일시 : 2026년 1월 31일(토) 오후 3시
- 장소 : 향린교회 (종로구 경희궁2길 11)
- 대상 : 교회개혁실천연대 회원, 임원, 사무국, 언론 및 관심자
- 순서 : 1부-여는예배 (새삼교회 이수연 목사)
2부-미니콘서트 (교회개혁실천연대 회원모임 '평화합창단')
3부-정기총회

광양교회 윤태현 원로목사 추대

운영법 목사 위임예식 18일 오후 2시 성료

광양교회(위임목사 운영법) 장로·권사 은퇴, 원로목사·원로장로 추대 및 목사위임 예식이 지난 1월 18일(주일) 오후 2시 광양교회(광양시 광양읍 서평7길 31-1) 예배당에서 열렸다.

윤태현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제1부 감사예배에서 전 순천노회장 배규현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제2부 장로 3인, 권사2인의 은퇴예식 후 원로목사 추대예식이 이어졌다.

광양교회 당회 서기 윤성남 장로는 추대사에서 "윤태현 목사님은 1989년 본 교회 창립 이래 위임목사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36년을 하루같이 사무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와 섬김의 삶을 쉬지 않으셨다"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면서 신자의 본이



광양교회 윤태현 원로목사(오른쪽) 추대식과 운영법 목사(왼쪽) 위임예식이 주일인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 광양교회 예배당에서 거행됐다.

되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셨다"고 전했다.

원로목사로 추대받은 윤태현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해 주신 장로님들과 광양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운영법 목사의 위임예식에서 윤 목사는 "본 교회의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울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서약했다.

이날 예식에는 광양교회 성도들과 윤 목사가 부교역자로 시무했던 광주번영교회 성도들, 금호번영교회 서순석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 윤 목사의 위임예식을 축하했다.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출판기념회 '성향'

"주민과 함께 만든 성과, 답을 찾는 행정 이어갈 것"

1만 3천여 명 구름 인파 열기 속 8시간 넘게 진행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의 지난 7년간의 구정 성과와 행정철학을 담은 저서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출판기념회가 지난 17일 오전 9시에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에서 열렸다.

1만 3천여 명의 인파가 물리면서 대성황을 이룬 이번 출판기념회는 별도의 공식 기념식 없이 저자와의 만남 형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행사 시작

전부터 인파가 밀리면서 한 시간을 앞당겨 오전 9시에 행사를 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끊임없이 이어진 행렬로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휴식시간도 갖지 못한 채 진행된 저자와의 만남은 예정된 오후 5시를 넘어 6시까지 계속됐다.

이날 행사장엔 광주·전남 지역 정관계 인사들 비롯해 종교계·경제계·교육계 등 각계각층 인사들과 남구 주민들이 다수 참석했다.

신정훈, 이개호, 주철현, 이진태, 양부남, 정진욱, 안도걸,

정준호, 전진숙, 박규택, 민형배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이 행사장을 찾아 축하했으며, 운영법 나주시장, 이상익 함평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김성 장흥군수, 정성주 김제시장, 강문태 전 광주광역시장,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송갑석 전 국회의원, 이정희 변호사,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이기영 배우 등도 직접 출판기념회장을 찾아 김병내 남구청장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김 구청장이 평소

행정을 대하는 신념을 제목으로 삼은 책으로, 재선 구청장으로 재임한 지난 7년간 남구 주민들과 함께 걸은 행정의 과정과 그 속에서의 고민, 그리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이뤄낸 성과들을 담았다.

책에는 민선 7기와 8기를 거치며 추진한 ▲백운광장 상습침수 문제 해결 ▲양림동·사직동·방림2동·송암산단 등 도시재생 5대 유형 사업 ▲효도 행정 ▲생활형SOC 복합화 사업 확충 등 주민 체감형 정책들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소개돼 있다.

김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행정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며, 진심을 다하면 길이 열린다는 신념으로 남구 곳곳의 변화를 실천해 왔다"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남구에서 이뤄낸 변화는 공직자와 주민이 함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17일 오전 9시부터 광주대 호심기념도서관에서 열렸다.

게 만들어낸 결과로, 이 책은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도시재생과 경제정책 역시 안전을 기반으로 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남구의 변화는 결코 혼자 만든 결과가 아니라, 늘 함께해 준 주민과 공직자들이 이뤄낸 성취"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 속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내 분야 빛나는 기획도시 광주 + OK! 저출산 전남시대

합치면 특별해집니다



지역은 더 부강하게

- ☑ 경쟁 불필요
- ☑ 특별한 보상
- ☑ 일자리 증가

복지는 더 따뜻하게

- ☑ 통합 복지서비스 마련
- ☑ 생애전주기 돌봄 강화

교통은 더 빠르게

- ☑ 60분 생활권 완성
- ☑ 교통 할인 혜택 통합

생활은 더 즐겁게

- ☑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대
- ☑ 축제·행사 공동개최

일상은 더 안전하게

- ☑ 광역 의료 체계 구축
- ☑ 의료자원 공동활용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사·도민 소통 플랫폼